

“진정한” 언어학의 철학을 위하여

실뱅 오루 & 자멜 쿨루리
번역 및 주해: 박 여성*

철학과 언어학 사이의 관계가 언급될 때면 흔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이 사용된다: (i) 언어의 철학(Philosophie der Sprache), (ii) 언어철학(Sprachphilosophie), (iii) 언어학의 철학(Philosophie der Linguistik). 그런데 (iii)의 경우는 논리학의 철학(Philosophie der Logik)이나 수학의 철학(Philosophie der Mathematik)과 같은 조어법(造語法)을 따르기 때문에 앞의 두 개념처럼 중의적이지는 않다. (ii)에 대해서는 로티가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¹⁾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초하는 제한적 정의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철학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철학적 질문(예를 들면 존재론적인 질문이나 지각, 현실 및 도덕 등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결국 언어적인 질문으로 간주하는 철학자들(대부분 영미 철학자들)의 이론적 활동에 관련할 것이다. 조금 더 한정해 보면, 이를테면

*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조교수

이 논문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어철학자인 실뱅 오루(Sylvain Auroux)와 자멜 쿨루리(Djamel Kouloughli)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 Berlin)의 언어철학자인 위르겐 트라반트(Jürgen Trabant)가 1995년에 간행한 편집서인 『언어를 생각하기. 현대언어철학의 입장들(Sprache denken. Positionen aktueller Sprachphilosophie, Fischer)』에 실려있다. 이에 대해서는 R. Rorty(편), The Linguistic Turn, Chicago 1967 참조.

1) [역주] 미국적 전통에서 수학했으면서도 영미의 분석철학과 유럽의 대륙철학 사이의 중용을 추구하는 로티는 이와 같은 언어학적 전환의 비조로서 언어를 인식의 원초적 가능성으로 인식한 빌헬름 폰 훔볼트를 들고 있다. 훔볼트와 관련한 로티의 언어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D. Horster(1991) Rorty, Eine Einführung(Junius, Hamburg) 및 한국어판 『로티』, 인물이해 시리즈 1(인간사랑, 박여성 옮김, 2000)을 참조.

언어철학을 언어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의 연구라기 보다는 언어연구로 환원될 수 있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연구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언어가 철학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영역의 하나라는 주장과 언어학적 전환의 기본체제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로티(R. Rorty) 자신도 언어학이 철학적인 (예를 들면 정신의 본질과 작동에 관련하는)²⁾ 질문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체제와 자신의 체제를 혼동하는 것 같다. 현실의 구조는 일상언어의 분석보다는 차라리 물리학의 구조와 더 관련이 있으며, 지각의 정확한 본성은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용법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경심리학에 좌우된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면,³⁾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언어철학을 다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개념 (i) 또한 (ii)는 물론 (iii)과도 유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iii)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언어학은 특수화된 대상, 방법론, 연구자 및 제도를 가지는 과학적 인식의 영역이라는 사실부터 확인해 보자. 언어학은 자연언어의 구조와 본질 및 역사적 전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언어학은 실존하는 언어들, 즉 발화하는 인간이 과거 또는 현재 산출한 언어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언어의 본질을 탐구한다.⁴⁾ 언어학 영역의 진술들(과학적 주장들)은 개별

2) 카츠의 논문 “언어학 이론의 철학적 유용성(The Philosophical Relevance of Linguistic Theory)”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로티의 편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카츠는 언어학의 어떤 결과들이 철학자들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어떤 철학적 표상들은 언어학적 원리의 현상태에 의하여 배제되는 지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3) [역주] 이런 점에서 인식의 생물학적 조건들(환경과 주체의 분리, 신경망의 작동원리)로부터 인식론적-언어철학적 함의를 도출하는 마투라나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식의 나무, 인식활동의 생물학적 뿌리(Der Baum der Erkenntnis, 1978)」(H. Maturana/F. Varela 지음/최호영 옮김, 1995, 자작나무), 「구성주의(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S. J. Schmidt 편/박여성 옮김, 1995, 까치)를 참조.

4) 우리는 경험적 내용을 가지는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의 지위에 인간언어의 상이성의 연구가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싶다. 그러한 연구가 없다면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일련의 중요한 인식이 얻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능력(能格: Ergativ) 언어와 대격(對格: Akkusativ) 언어 사이의 대립이나 동사가 없는 슬화(進化)의 가능성 같은 중요한 현상들은 그것들이 계통론상으로는나 유형학적으로 상이한 언어들에서 실제로 출현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었을 뻔했다. 나아가 그것이 인간의 언어능력에 의미하는, 이를테면 언어의 상이성이 하나의 사실이며 인간의 언어들은 하나의 역사를 가진다는 일련의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도 제기되

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경험적인 주장들로서 공식화될 수 있으며, 검증되고 확인되거나 반박되어야 하는 일정한 종류의 실재(實在, Realität)에 관련한다. 그런데 언어학적 지식을 순수한 경험적인 지식으로만 간주한다면 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식의 일부분은 의심의 여지없이 규범적인 차원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쨌든 언어학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언어학의 철학이 이러한 실제 현상의 연구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심지어 언어학자들이 규범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도, 언어학의 철학은 이러저러한 규범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다루어야지, 그 규범적 실제 현상 자체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요약해 보자: “언어학의 철학”이라는 영역의 작업에서는 철학자들의 유일한 연구대상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학이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학의 철학의 영역에서 연구하는⁶⁾ 데리다(J. Derrida), 하버마스(J. Habermas), 하이데거(M. Heidegger) 또는 씨얼(J. R. Searle) 같은 “언어의 철학자”들의 철학적 창조물들을 비교해 보면, 대단히 인상적이지는 않아도 특징적으로 이들 중에 몇몇 일급 철학자들이 발견된다.⁷⁾ 반면에 언어의 철학 특유의 그리고

지 못할 뻔했다.

5) 어떤 진술 R(예를 들어 형용사의 복수에 대한 진술)을 고찰해 보자. R은 해당 하는 언어를 말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의하는 규범적 진술 R1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어떤 진리치도 할당될 수 없다. 혹은 R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주장 R2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참 또는 거짓될 수 있다. 현대 언어학자들은 오히려 R2 유형의 주장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을 경험과학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견해로 인하여 언어학의 철학에 많은 문제와 논란이 야기된다. 이의 유사한 주제의 문제들에 관해서는 E. Itkonen, *Grammatical Theory and Meta-science*, Amsterdam 1978과 J.-C. Milner, *Introduction à une science du langage*, Paris 1989를 참조할 것.

6) 이에 대해서는 V. Henry, *Antinomies linguistiques*, Paris 1896; E. Itkonen, *Grammatical Theory*; E. Itkonen, *Causality in Linguistic Theory*, Beckenham 1983; R. Harris, *The Language-Makers*, London 1980; J.-C. Milner, *Introduction à une science du langage*; S. Auroux, *Le rationalisme et l'analyse linguistique*, in: *Dialogue XXIII*(1989), 203-233쪽; S. Auroux(번), *Histoire des idées linguistiques*, I권: *La naissance des métalangages en Orient et en Occident*, Liège 1989; P. Carr, *Linguistic Realities. An Autonomous Metatheory for the Generative Enterprise*, Cambridge 1990 참조.

7) 그러나 이 연구영역은 의미 있는 것 같다. 진정한 철학자들에게는 몇몇 언어학자들이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불손하고도 영성한 방식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

제한된 의미는,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언어에 대한 철학의 독자적인 접근통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함축한다. 그렇게 보자면 철학자들은 언어학자들로부터 반드시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아도 인간의 언어에 대한 진정한 의미심장한 사실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단서들과 그것이 야기할 결과들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본다. 언어의 유일하게 가능한 그리고 유효한 철학은 언어학의 철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태제이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연구영역에서 무엇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개관과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이 맥락에서 설정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언어의 철학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제목을 표방하는 책들은 어떠한 종류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가? 언어에 대한 지식의 유효한 일부를 포함하는 언어의 철학이란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리스인들로부터 시작하여 당연히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언어에 대한 일련의 일반적인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의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a) 언어와 사고(실재론[實在論: Realismus], 명목론[名目論: Nominalismus] 등)

b) 언어와 현실(그리스 철학의 용어로는 “logos”와 “ousia”; 현대 분석철학의 용어로는 “의미”[Bedeutung]와 “지시”[Denotation], “의미”와 “진리”[Wahrheit], “명명”[Benennung(Naming)]과 “필연성”[Notwendigkeit(Necessity)]⁸⁾ 등; 하이데거의 용어로는 “존재자와 언

경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촘스키에 대해서는 D. Cooper, Innateness: old and new, in. *Philosophical Review* 81(1972), 465-483쪽 참조.
8) [역주] 자연과학이나 공학 텍스트의 전문용어들은 대부분 개별언어의 질서보다는 이 세상을 분류한 객체적 질서를 따른다. 이런 점에서 전문언어의 어휘소들은 외부대상 세계의 분류결과이며, 분류된 전문언어 어휘소들의 경제구획은 철저하게 배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각종 학문의 체계는 중의성에 시달릴 것이다. 그 차이는 전문언어와 일상언어의 어휘들의 대립구조를 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의 논리철학자 크립케(S. Kripke)에 기대어 스웨덴의 언어학자 룬트크비스트(L. Lundquist (1989) “Coherence in Scientific Texts.” In: W. Heydrich(hg.) *Connexity and Coherence*, 122-149,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참조)는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 일상언어는 우발적 속성(contingent properties)에 대한 선험적 규정(a priori knowledge of a natural kind

어”(das Seiende und die Sprache)(“존재와 언어 (das Sein und die Sprache)와는 다르다).

c) 언어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언어의 의의(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결국 철학적 연구는 도대체 언어의 어떤 존재양식이 가능한지부터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⁹⁾

d) 언어들과 말하기의 근원

d)를 다루는 질문들은 더 이상 철학적인 탐구의 유효한 주제들이 아니기는 하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로, 외적인 근거이다: 즉 1870년경의 언어학자들이¹⁰⁾ 그 주제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언어는 늘 이미 주어진 사실이며 말하기는 늘 이미 존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철학적인 논란이다. 그러나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언어들은 동물적인 행태에서 유래하였고 그곳에 연원을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a), b) 그리고 c)를 다루는 질문들 또한 물리적 세계의 구조와 시원(始原)에 대한 질문들이 황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 여전히 언어의 내적인 본질에 대한 매우 세련된 이론들을 추구하는 반면에, 그와 같은 논리를 세계의 내적인 본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고유한 입장에 대한 몇 가지 근거는 의심할 바 없이 언어의 본질과 그 사회적인 의미로부터 유래한다. 모든 개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들을 말한다. 모든 개체는 언어에 대해 무엇인가를 안다. 문법(및 그 메타 언어의) 교육은 이미 초등학교의 교과

term)으로서 원초적 명명의식(original naming ceremony)인 반면, 전문용어들은 본질적 속성에 대한 후험적 지식(a posteriori knowledge of essential properties)에 근거하는 새로운 명명의식(new naming ceremony)이다.

9) M. Heidegger, *Sein und Zeit*, 16판, Tübingen 1986, 166쪽.

10) S. Auroux, *La question de l'origine des langues: ordre et raison de rejet institutionnel*, in: J. Gessinger/W. von Rahden(편), *Theorien vom Ursprung der Sprache*, 2권, Berlin 1988, 122-150쪽 참조. [역주] 당시는 역사문법 시대로서 예외 없는 음운법칙을 추구하는 역사주의만이 언어과학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Sprachwissenschaft und Sprachphilosophie im Zeitalter der Romantik*』(H. Gipper/P. Schmitter, 1985, Gunter Narr) 참조.

과정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물리적 세계와 관련 있는 “관성(慣性: Trägheit)”, “나선(螺線: Spin)”, “염색체(Chromosom)” 같은 개념보다는 대부분, 주어, 명사, 부사 또는 시제 같은 개념에 더 익숙한 것 같다. 물론 언어적 현상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입자 가속기나 망원경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 사실 소수의 언어학자들은 자기 주위를 벗어나는 언어자료조차 제대로 수집하지 않으며, 대부분 자신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물리학적인 주제들에 있어서는 간단히 듣거나 볼 수 있는 사물들을 다루는 과학자는 없다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과학에 의하여 연구된 물리적 세계는 일상적인 지각의 세계가 아니라 누구도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세계이다. 이와 달리 우리는 언어학 이론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친숙한 대상을 다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말하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방해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말하기에 대한 말하기는 일상적인 언어행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토박이말은 개개인의 인간의 일부분 일뿐만 아니라, 정서성, 사회적 지위, 정치적 투쟁 및 개인의 정체성(正體性)과 관계가 있다.

철학의 표상들로부터 훨씬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제시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앵글로색슨과 유럽 대륙의 전통을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언어철학에 대한 위한 분석철학의 기여를 개괄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크립키(S. Kripke)의 논문들, 예를 들어서 이름(Name)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언어 이외의 이리저리한 다른 언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영어의 보기들은 곧장 보편적인 것이 되며 언어 개별적인 논거들은 제시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증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그것들을 번역할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진정한 언어학적 처리과정이라면 관사의 존재여부나 관계문의 구조, 특정한 언어에서의 형용사의 위치 등에 몰두하였을 것이다. 방법론이나 주제상의 피리들이 곧바로 드러난다. 크립키나 써얼 그리고 오스틴 어느 누구도 언어학자가 아니다. 그들이 각자 특정한 인간 언어를 분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러셀(B. Russell)의 한정적 기술(definitive description)의 이론¹¹⁾을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이론이 기존의 어떤 자연언어

에 대한 무엇을 주장한다고 말할 수 없다. 언어학적인 속고와 연관되는 현상들로는 그런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 아마도 한정적 기술이라는 것은, 특정한 언어들로 쉽게 번역될 수 있을 정도로 주어진 영어의 표현(또는 그 밖의 다른 인도 유럽어)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이 이론이 언어학자들에게 흥미 있는 가설들을 매개해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적 기술의 논리적 구조는 그런 표현들의 본질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어떤 언어학자에게 예를 들어서 타갈로그(Tagalog) 어에 한정적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와 같은 질문은 고유명사가 아니지만 특정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어떤 타갈로그 어 표현들이 이 세계의 주어진 어떤 대상과 관련할 수 있는지를 속고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첨예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타갈로그 어를 말하는 어떤 남자에게 그가 방금 키스해 준 여인이 누군지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언어학자에게는 그 남자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표현할 것인가가 유일한 유효한 질문이다. 러셀의 이론은 언어에 해당하는 사실을 다루고는 있지만, 자연언어 그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다. 분석철학의 전통에서는 철학자들은 그들의 이론들을 토론하는 가운데(아마 인공적인 논리언어나 다른 방법론을 통하여) 진전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논의에서 무엇이 경험적으로 검증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그것은 아마 주어진 논리적인 노력에 전형적인 특징을 수반하는, 인간의 언어가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세련된 기술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써얼이 말하는 화용론이나 그라이스의 대화의 격률(Conversational Maxim)¹²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수

11) [역주] 논리학에서 한정적 기술(definitive description)은 어떤 개체에만 할당될 수 있는 속성을 통한 규정을 말한다. 언어학에서는 상황(직시어Deixis)이나 텍스트에서의 진술언급 또는 사전지식을 통하여 청자에게 전달된 일정한 피지시체의 집합에서 어떤 피지시체의 위치를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명사구의 한정을 위해서는 특히 한정사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고유명사는 그들 자체가 한정에 의한 명칭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한정적이다. 정관사는 한정성을 가지지 않는다. Jakob과 der Jakob은 동등하게 한정적이지만, Rhein 같이 정관사 없는 한정적 기술은 가능하지 않다.

12) [역주] Grice(1968, *Logic and Conversation*)는 Kant의 범주론에 기대어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화용론적 격률을 제시한다: (1) 양(Quantity)의 격률: 커뮤니케

있다. 그 이론들의 보편성은 빈약한 경험적 성분(그리고 아마도 설명적 유효성의 결핍)¹³⁾에 근거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들이 단적으로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황량한 맨해튼 본토박이나 다국적 공룡기업의 가난한 샐러리맨이 아닌 이상 그라이스가 말하는 “유효한 말만 하라!”거나 “간단 명료하라”는 대화의 격률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앵글로색슨의 언어의 철학에서 수행된 총체적인 연구들에 대하여 그들이 이룩한 이론적 가치나 언어학적 유효성을 폄하하려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의 일부가 전적으로 논증의 조절된 기법과 확고한 결과들에서 제시되는 실증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이론들이 일정한 종류의 대상에 대한 일정한 종류의 지식을 창출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앵글로색슨 언어의 철학에서 연구하는 이러한 대상 유형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규정에 문제가 있으며, 언어과학의 근본적인 대상인 인간의 언어에 대한 그 이론들의 입장에 대한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대답은, 앵글로색슨 언어의 철학이 자연언어들의 이상화된 특정한 속성들(양화[量化: Quantifizierung], 양상화[樣相化: Modalisierung], 술화[述化: Prädikation])을 견지하는 상징체계의 구성에 몰두한다는 가설에서 탐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구성체들이 실제로 자연언어의 모든 또는 가장 중요한 의미심장한 속성들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확증은 없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언어철학의 현대적인 입장과 수천년에 이르는 언어와 논리학 사이의 관계 사이에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맞는다면, 언어철학에 의하여 발견된 몇몇 문제들 또는/그리고 연구영역들이 언어학자들에게도 흥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¹⁴⁾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오로지 자연

이전에 필요할 정도의 정보만 만들라. (2) 질(Quality)의 격률: 참인 진술만 말하라. (3) 관계(유효성 Relevance)의 격률: 유효한 발화만 하라. (4) 양상(Modality)의 격률: 명료하게 말하라. 이 하위원리는 상위원리인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로부터 도출된다. 이를 토대로 문화적 종속성을 가지는 표현들이나 간접화행 및 대화의 함축 현상을 기술할 수 있다.

13) F. Kiefer, "What do conversational maxims explain?," in: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III, 1(1979), 57-74쪽 참조.

언어의 분석으로부터 유래하는 특정한 문제들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만 언어학의 영역에 그러한 수입품을 도입한 실제의 기술적인 그리고/또는 설명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대륙철학의 전통으로 돌아오자면, 일단 이러한 전통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본에 대한 질문에 몰두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데카르트 주의자들을 거쳐서 그리스인들에 의해 주도된 이러한 노력은 세 가지 기본가정을 포함한다: (i) 철학은 모든 실제 현상과 지식을 단일체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제1원리를 찾아야 한다; (ii) 이 원리는 확고해야 하며 그 어떤 회의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iii) 이 원리는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얻어진 명제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험적인 지식은 자기 충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언어학적인 주제들에 관해서, 이러한 단서의 결과들은 차라리 실망스러우며, 종종 전형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라뤼엘¹⁵⁾이나 레스베버¹⁶⁾ 같은 철학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라뤼엘은 음소(音素)라는 언어학적 개념에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아마도 언어학적으로 발화능력의 첫 번째 위치에 상응할 phonème라는 개념을 음소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레스베버에게 있어서도 철학은 신조어와 다른 수사학적 수단을 통한 의심스러운 개념적 속성의 고안으로 간주되었다. 그에게 성찰의 명예를 부여하는 원리가 없다면, 철학에는 플라톤의 동굴의 어두운 측면에서의 말하기만 남는다. 레스베버에게는 dis-cours(담-론)가 바로 이 경이로운 원리이다: 그것은 의미와 기호가 의의를 획득하는 말하기의 의미심장한 기층(基層)이다.

한편으로 분석철학자들이 언어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경험적 성분을 평가하는 것이 늘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대륙의 언어철학이 종종 쓸데없는 헛소리만 떠든다는 인상을 거의 방어할 수 없

14) 무엇보다도 우리는 명제주의적 입장과 그것이 언어의 양상화 분석에 끼친 영향, 그리고 한정적 기술과 언어적 환경의 연구에 준 고무적인 자극을 인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논리적 술화의 형식적 이론은 언어적 술화의 모델로 삼기에는 그야말로 실망스럽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의 이론 또한 전방조용어(Anapher)의 모델로는 대체로 역부족이다.

15) F. Laruelle, Pour une linguistique active (la notion de phonème), in: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 4(1979), 420-431쪽 참조.

16) J. P. Resweber, La philosophie du langage, Paris 1979 참조.

다. *Differánce*, *phonèse*, *dis-cours* 등은 허깨비 개념에 불과하며, 실재의 합리적인 해명에 아무런 기능도 가지지 않는 형성체이다. 이 철학자들은 플라톤의 *nomothestes*를 생각나게 한다: 언어학의 개념 형성이 아마도 늘 문제들(예를 들면 소쉬르 구조주의의 의미에서 정의 될 수 있는 변별특징이나 관계들 같은 문제)을 제기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것은 하나의 낱말(보기: Derrida의 *differánce*(差延))을 참조하며, 이를 통하여 마치 한 낱말이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해명할 수 라도 있을 것 같이 기뻐한다. 이러한 입장을 통하여 신의 *logos* 같은 철학적 언어는 세계에 질서와 이해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사실 대륙철학의 전통은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¹⁷⁾나 아펠의 선험적 화용론(*transzendente Pragmatik*)¹⁸⁾ 처럼 여러 사실들을 고안해 냈지만, 최근(즉 1960년대 이후)에는 언어의 철학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인 저작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언어라는 것이 어째서 철학에 중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근거를 통하여 해명될 수 있다.

이때 본질적인 것은, 하킹이 보여주듯이,¹⁹⁾ 언어가 지식과 주체 사이의 접속면으로 기능하거나(지식을 가지는 주체를 포기하고 담론을 독자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문장들은 지식의 조직이라는 점이다. 이제 대륙철학은 경험적 지식의 실제적인 다양성이건 그것의 형식적인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성취에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제1원리를 향한(또는 일련의 추상적인 원리들에 대한) 탐구는 그것의 직업적인 능력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언어는 그러한 탐색과 별로 -관계라는 것이 있다면- 관계가 없다. 언어에 대한 특정한 분석철학적인 성찰을 통하여 값진 통찰을 얻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예를 들어 대상 언어[*Objektsprache*]에 대한 카르납(R. Carnap)의 설명,

17) [역주] 이에 대해서는 데리다의 주저 「그라마톨로지」(김성도 옮김, 민음사, 1996) 참조.

18) [역주] Apel은 칸트가 인식의 가능성으로서의 언어의 역할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철학의 개편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방금 위의 입장을 그대로 표제로 단 그의 주저 「*Transformationen der Philosophie*. Bd. 1-2」(1973, Suhrkamp)를 참조.

19) I. Hacking, *Why Does Language Matter to Philosophy?*, Cambridge 1975 참조.

진리에 대한 타르스키(A. Tarski)의 설명, 규칙[Regel]과 약정[Konvention]에 대한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설명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이 영역에서 작업했던 철학자들이 기술적인 질문을 다루었고 합리적인 가설을 논의에 부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륙의 언어철학이 언어에 대한 지식과 관계 있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혹시 몇 가지 수사학적인 실제 사례를 제외하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철학자들은 대부분 매우 개인적이고 종종 선풍적인 문체를 고안해 내었기 때문이다.)

대륙철학자들은 진정한 철학적 연구는 과학에는 등을 돌려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종종 낱아빠진 그리고 가끔씩 매우 소박한 개념을 사용한다. 특히 이것은 언어학자의 이름이나 책이라고는 인용한 적이 없는-아마 언어학 문헌은 단 한 줄도 읽은 것 같지 않다-하이데거에게서 가장 두드러진다. 우리는 하이데거의 저서에서 (늘 언어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닌) 어원에 관한 중세의 용법이나, 신화화된 언어사로부터 실재나 지식의 구조에 관련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 자신의 취향은²⁰⁾ 물론이거니와, 언어의 정신 같은 개념이나 고대 그리스가 언어의 힘을 통하여 철학을 발전시켰다는 생각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주어진 주장이 언어학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지식을 산출하는지의 여부는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긍정적인 언어학적 지식의 뿌리는 공리로 환원되며, 모든 언어 그 자체는 언어를 결정하는 모든 본질적인 속성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발화 가능성(Sagbarkeit)”²¹⁾ 같은 공준(公準)의 효용을 평가하거나 그것을 언어상대성 가설(사피어-워프 가설)의 합리적인 해석과 대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하이데거가 의도한 것은 주어진 언어적 구조가 세계의 주어진 지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특정한 언어(아마 독일어를 포함하여 두 개의 언어)가 현실의 진정한 지각(또는 그의 용어로 하자면 존재의 의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공준(公準)의 의심스러운 어조는 그만두고라도, 이러한 생각은 모든 언어는 우리가 그 언어로 표

20) H. Menschonic, *Le Langage Heidegger*, Paris 1990. 참조.

21) [역주] 사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비트겐슈타인의 테제이다.

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원래 그 언어의 화자가 창조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신적인 표상도 표현할 수 있다는 번역가들의 일상적인 현실과 당연히 충돌한다.

더욱이 하이데거의 입장에는 하나의 이율배반이 존재한다. 즉 그리스어에서는 보편적인 의미가 없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어떤 경우가 있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이다. 그래서 데리다는 벤베니스트(E. Benveniste)가 그리스 어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설정한 범주(範疇) 사이의 유기적 연관관계²²⁾를 분석한 것 또한 비판한다. 벤베니스트에게는 존재, 수동성, 양 등의 범주는 그리스어의 형태론적-의미론적 특성에만 토대를 둔 추상체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언어인 이위(Ewe) 어에서는 그리스어의 eimi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론적 가치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이 형태소를 그것이 사용되는 모든 가능한 맥락에 산입해도 목표언어에서는 의미 있는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형태소의 용법이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실제의 철학적 분석은 전적으로 언어 상대성에 좌우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데리다에게 이것은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철학적 사고에 보편적 효용성이 결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가 없다면 진정한 언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로 인하여 데리다는 할 수 없이 그 대가(하이데거)의 의도는 다른 언어는 진정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없이는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의 그의 의도였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sein에 대한 정확한 등가가 없는 언어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이 sein이라는 동사를 명시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암시적으로 가진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역할 수 없는 해결이 제시된다. sein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sein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최선의 증거는 sein이 존재하는 곳에서 sein의 비존재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²³⁾ L'absen-

22) E. Benveniste, *Catégories de pensée et catégories de la langue*, (1958),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권, Paris 1966, 63-74쪽 참조.

23) J. Derrida, *Le supplément de copule. La philosophie devant la*

ce de >être<, l'absence de ce singulier lexème est l'absence elle-même. La valeur sémantique d'absence en général n'est -elle pas dépendante de la valeur lexicale-sémantique de >être<? 이로써 sein이라는 철학적 문제는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안하고 포르-르와얌²⁴⁾ 문법학자들이 이용했던 verbum substantivum(명사적 술어)의 고전적 이론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이론은 주장하기를, 언어에는 오로지 하나의 진정한 동사, 즉 sein 만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동사들은 실은 형용사이며, sein + 형용사(=현재분사)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의 한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그 이론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아마도 유의적인 문장들의 시체나 상(相)의 가치로 이해하려 할 것이다(특히 영어에서 현저한 문제들이다). 그 결과 데리다는 (벤 베니스트의 설명을 따라) 예를 들면 셈(Sem) 즉 언어들 같은 일련의 언어들이 제시하는, 이른바 명사적 술어(Prädikatsnomen)에 토대 하는 새로운 논거를 생각한다. 그런 언어들에서는 동사적 성분이 없어도 술화(述化)가 명사+명사로 잘 표현될 수 있다. 어쨌든 한편으로는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자들에 의하여 그러한 구성체가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 언어학자들은 다른 언어적인 속성들과 연계될 수 있는 언어적 사실을 묘사한다: 예를 들어 계사(繫辭: Copula)가 없는 언어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일정한 한 가지 방식으로 술어적 기능을 공유하는데, 그 결과 상이한 품사의 규정이 가능해진다.²⁵⁾ 철학자들은 그에 준하는 계사가 없는 명제들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그 명제들이 몇몇(특히 유럽의) 언어들에서는 계사가 포함된 명제들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명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도 될 계사들이다. 우리가 그러한 논증의 패턴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증명

linguistique, in: *Langages* 24(1971), 35쪽 이하 참조. [역주] 이것은 이미 파르메니데스가 예물 든 아킬레스의 이율배반에서 잘 알려진 논리적 모순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구조의 형클어짐에 대한 흥미진진한 논의에 대해서는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노란, 상·하」(D. R. Hofstadter, 1979, 박여성 옮김 1999, 까치) 참조.

24) 최근에 「논리이성문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25) A. Le Maréchal, *Les parties du discours*, Paris 1989, 20-2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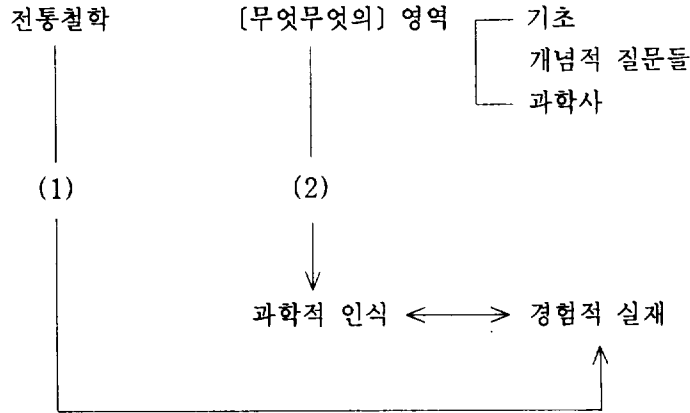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오류추론으로 인하여 철학적인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그 지점이다.

그것은 언어의 철학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나태한 무엇이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다는 말인가? 무엇이 독자적인 언어의 철학과 부합하지 않는가? 어째서 철학자들이 장차 어느 날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철학적인 질문에 대답할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조심스런 대답을 시도하고 그것을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는 독자들의 주의력을 일단 철학적 숙고의 다른 영역, 즉 자연현상의 연구로 돌리고자 한다.

오늘날 "자연철학"(Naturphilosophie),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Physik)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자연 세계의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철학적 탐구에 관심을 가진 철학자는 거의 없다. 그런 관심을 기울였던 마지막 철학자 세대는 독일의 관념론자들(피히테Fichte, 헤겔Hegel, 셸링Schelling)이었다. 그들은 물리학이란 자연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결코 창출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논증에 따르자면 물리학은 양과 수학적 추상만을 다루지, 유일하고 오로지 질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와 실질적 현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제 독일 철학자들이 결국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했던 것은 경험이나 기술적 관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극도로 환상에 찬 고안이었다. 그들의 이론은 공허했으며 물리학의 사회적인 발전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의 사상은 오늘날에는 철학사에 관심을 가지는 과학자들에게나 가능한 연구주제일 뿐이다. 따라서 철학자들이 오늘날 자연세계의 구조와 관계 있는 주제들을 다룬다면, 그들은 우주론, 물리학 또는 생물학과 친숙해져야 한다. 철학적 숙고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철학은 자연과학의 철학(물리학, 생물학 등)에 의하여 완전히 와해되었다. 그것은 철학적 사고가 긍정적인 자연과학적 인식에 응용되어야 하지 그 어떤 자연 대상의 사이비 가설의 인식에 직접 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이에 자연과학은 일반적으로 실제 세계와 철학 사이의 필수적인 중재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중재는 철학적 숙고 자체의 본질까지도 바꾼다. 그 지식은 철학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하의 도식은 이러한 시각의 교체를 묘사하고자 한다: (1)에 그려

진 경험적 실재에 대한 전통 철학의 직접적인 관계는 오늘날 무엇무엇의 철학이라는 영역과 간접적으로 대립관계(2)에 놓인다(이 경우 무엇무엇이라는 영역은 물리학이나 생물학 같은 과학적 연구의 하위분과들을 의미한다).



이제 자연철학을 낡아빠진 개성이라고 철저히 거부할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철학 같은 것이 존재할 것이며, 아마도 언어에 대한 철학자들의 일차적인 경험에서 직접 유래하는 의미 있고 합당한 방식의 철학적 사고로서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기이한 일이며, 그리 기뻐할 일도 못된다. 언어의 철학은 아직은 언어학의 철학에 의하여 와해되지 않았다. 달리 말하자면: 언어의 과학인 언어학은 여전히 철학과 언어 사이의 필수적인 중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경로의 대변자들은 언어는 간단히 자연과 동일한 인지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전자가 인간의 본질과 합일체를 이루는 반면에, 후자는 우리에게 낯설다는 것이다. 중재자로서의 언어학이 언어의 철학을 수립하는데 불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논거는 완전한 오류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자연적 존재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학과 생물학으로부터 직접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의 언어적 능력(우리를 말하는 주체로 만들어주는 지식)은 이러한 지식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또는 인간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들에 대한 의식된 또는 합리적인 표상을 결코 함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ormanten-transition”이나 “영(靄) 형태소” 또는 “순환규칙”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일련의 사실들을 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법에 대한 메타 언어적인 표상을 가진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언어학적 지식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언어에 대하여 개발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표상들(예를 들면 다른 언어들보다 우월하다는 등)은 물질적인 세계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잘못된 표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호도할 수 있다.

이제 언어학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한 책임을 철학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언어학자들의 잘못도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언어학자들이 그들의 원리들을 무질서하게 행사했던 것에 있다.

언뜻 보기에 언어학 전공서적을 읽어보면(특히 통사론이나 음운론의 영역),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하드 사이언스(엄밀 과학)의 용어들과 비견되는 공학적인 언어의 인상을 매개한다. 그 용어들은 종종 이질적이며, 묘사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논증방식, 특히 가설적-연역적 단서들의 논증방식은 마치 정교한 자연과학의 원리들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은 우리가 학술적 영향력을 겨루는 수많은 언어학과 중의 몇몇 학과 내부의 비교적 좁은 영역에 한정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어쨌든 시야를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인 인정을 받은 언어학과의 전체 영역으로 확대한다면, 언어학을 자연과학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특히 우리는 언어학자들 사이에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의견일치도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언어학의 연구영역과 관련하여 우리는 언어능력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언어의 구조를 거쳐서 체계의 체계들에 이르는 대상 영역의 구체화에 기여하는 매우 상이한 일련의 관점들의 목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토대로 보이는 자연

언어들조차도 상이한 확신을 가지는 언어학자들마다 전혀 화합할 수 없는 용어들로 설명된다. 이 경우 몇몇은 위계적인 조직층위의 구조화로 간주되고, 다시금 어떤 것들은 개념적 조작의 복합적인 묶음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규칙의 체계로 간주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상의 학파들마다 치환과 분포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자료분석에서부터 가능한 연쇄체와 불가능한 연쇄체를 분리함으로써 형식적인 연역적 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기까지 연구방법론은 다양하다. 이 경우 언어학적 전문개념의 풍요로움은 정교한 관찰이나 이론적인 세련도에 그리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사이버 개념들만 무한하게 창출하게 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개념들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들이 자신은 이러저러한 언어학파에 속한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한 그렇고 그런 유의어들이 유달리 언어학에 범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우려할만한 결과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학문적인 목표의 영역이나 근본적인 개념과 기술들을 공유하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언어학자 공동체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언어학적 문제 또는 언어학적 해결로 간주되어야 할 기본적인 공감대조차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라져 버렸다.

학문적 연구의 다른 영역에 견주어 볼 때 이러한 전무후무한 사태의 상황은, 적어도 역사문법의 시대 이후로 전개되어 왔고 구조주의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존속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퇴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학이 언어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철학자들이 소급하는 그런 부류의 문제들을 정의하고 의미심장한 해결을 규정하기 위한 각 개별분과의 기준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언어학적 연구영역의 이러한 해결의 전형적인 결말은 공통적으로 인준받을 수 있는 언어학사의 결핍이다. 오늘날의 천문학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그 체계가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체계와 얼마나 피리가 있건)를 천문학이라는 과학을 구성한 하나의 층위로서 인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물리학은 뉴턴과 갈릴레이의 층위를 학문적 유산의 일부로서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관련성이 훨씬 약하거나 이질적인 시도들까지도 통합하였다. 언어학자들만이 이른바 과학적 단절이라는 어리석은 전략에 집착하며, 연구영역의 학문적 사고의 시발점을 -자기 자신은 아닐지언정- 바로 자기의 직계 스승에만 두는 우를 범하고 있다. 개별 분과의 내용이나 방법론에 대한 진정한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큼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부분의 문화에서 발달의 초창기에서부터 문법적 분석의 몇몇 오래된 체계들에서도 현대이론 못지 않게 야심차고 합리적인 경우들과²⁶⁾ 언어에 대한 이성적인 성찰들이 발견된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러한 정황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나아가 상이한 학파의 두 언어학자가 언젠가 그들의 연구영역에서 행해진 가장 중요한 열 개의 발견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보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거의 대부분의 다른 과학들에서는 볼 수 없는 유독 언어학만이 보여주는 분열상이다.

철학적 논쟁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기고들 또한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이 기고들은 전반적으로 언어상대성 이론과 언어보편소 이론이라는 두 개의 대립적인 주제영역들에 할당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던 첫 번째 주제는 특정한 언어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적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상관관계를 거론하며, 그것들 중 몇몇은 그 언어의 사용자들이 대상세계를 특정한 아마도 매우 특유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조직하는 기초성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로 불리는 것에서 유래하지만, 데리다 이론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앞서 언급했던- 벤베니스트의 논문 “언어의 범주와 사고의 범주”의 입장도 여기에 해당한다. 언어상대성 이론이라는 주제는 20세기 중반에는 격렬한 논의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 논의가 만족스럽게 계승되지 못하였다고 시인된다. 사실 언어상대성 이론의 토대는 의심스러운 증거들과 검증되기 어려운 주장들에 근거하였다. 언어와 인식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사피어-워프 가설에 한 장을 전부 할애한 아담 샤프는²⁷⁾ 캐럴, 브라운, 랜네버그 등에 기대어, 이 가설이 결코 그

26) S. Auroux(편), Histoire des idées linguistiques, 1권 참조.

27) A. Schaff, Sprache und Erkenntnis und Essay über die Philosophie der Sprache, Reinbek bei Hamburg 1974, II.1장 참조.

원래의 형태로 수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그 이론의 토대가 너무나 중의적이고 애매하며 일반화 과정 또한 너무 성급하며 경험적 토대도 빈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⁸⁾

이와 달리 언어보편소(Universalien) 이론의 주제는 일단 그린버그의 획기적인 연구가²⁹⁾ 설명한 방대한 연구와 매우 세심한 자료의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 이후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 입장은 세계의 언어의 엄청난 수의 보편적 경향의 실존은 물론이려니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언어적 조합의 집합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공백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매우 신뢰할만한 결과들이 철학의 석학들에게는 거의 영감을 주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인간정신의 이해를 위한 그 결과의 일반적인 의미나 함의에 대해서도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언어학 연구가 철학적 사고에 기여한 이러한 일반적인 주제들 외에도, 언어학자나 언어학의 잠역부로 전락한 철학자들에 의하여 언어학 이론을 방어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또다른 아마 철학적인 피조물도 언급해야 하겠다. 이 피조물은 주어진 언어학 이론의 개념적인 그리고 /또는 형식적인 속성을 출발점으로 취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 속성들이 결정적인 철학적 질문들에 대답하거나 또는 결정적인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 입장은 카츠나 포도어 또는 히긴보담³⁰⁾ 같이 생성언어학을 변호하는 학자들의 저작에서 뚜렷이 감지된다. 그런 식으로 후자는 예를 들면 언어의 규칙이라는 구상이 생성문법이론에 특유한 것이며, 같은 경향 내부에서조차도 각 모델마다 판이한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망각하고 있다. 그리고는 언어의 규칙의 본질과 우리의 언어적 활동에 개입하는 언어의 관계를 중요한 철학적 문제³¹⁾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도어는 이론

28) 위의 책, 90쪽 참조.

29) J. Greenberg(편),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ss., 1963 참조.

30) J. J. Katz, *Language and other Abstract Objects*, Totowa, N.J. 1981; J.A. Fodor, *The Modularity of Mind*, Cambridge, Mass., 1983; J. Higginbotham, *Philosophical issues in the study of language*, in: D.N. Osherson/H. Lasnik(편), *An Invitation to Cognitive Science*, 1권: *Language*, Cambridge, Mass. 1990, 243-257쪽 참조.

31) 위의 Higginbotham의 책, 243쪽 참조.

으로서의 문법, 선천적인 언어습득기술, 상징 데이터의 모듈 적인 처리 따위의 실험적 개념들을 무모하게도 철학적 사고의 본질적 대상으로 제안한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자신이 제시한 개념들이 스스로를 생성언어학 이론의 추종자로 믿는 학자 그룹의 내부와 외부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는 전혀 증명될 수 없는 이론 특유의 공준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보건대 철학적 문제를 다루어 온 언어학자들이 전통적인 철학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종종 차라리 훨씬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하여 철학자 인척 하려는 언어학자들의 습관에도 원인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언어학자들에게는 직업적인 철학적 수련과정이 결핍되어 있다. 이러한 유희에서 아마 가장 찬란한 인물인 촘스키에게서 그런 정황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합리주의 철학자라면 으레 언어는 특유한 능력의³²⁾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놀람게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촘스키는 합리주의를 운운하고 있으며, 그릇되게 선천설(Innatismus)을 일종의 생득설(Nativism)으로 간주하고 있다.³³⁾ 게다가 자신들이 긍정적인 과학의 영역에서 연구한다고 확신하는 상당수의 언어학자들은 그들이 철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판적인 논의를 다루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이 분명히 잘 입증된 학문적 결과일 것이라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언어학은, 앙리³⁴⁾ 오래 전에 강조했듯이, 철학적인 질문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카시러의 인상적인(그러나 운이 따르지 않은) 시도에도³⁵⁾ 불구하고 그러한 희망은 포기될 수밖에 없다.

32) S. Auroux, Le ratioanlisme et l'analyse linguistique 참조.

33) Cooper, Innateness 참조.

34) Si contrairement aux espérances d'un optimisme dont on ne saurait du moins méconnaître la bienveillance les découvertes le plus importantes de la philologie contemporaine ne fournissent ni fait ni principes qui puissent jamais conduire directement à la formation d'une philosophie du langage, elles auront montré- et ce n'est point un mince profit ni un mérite mediocre-les voies que celle-ci devra désormais s'entendre(...)(Henry, Autonomies linguistiques, 44쪽).

35) E.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1권, Die Sprache, Berlin 1923 참조.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스케치한 개괄이 언어의 철학의 모든 노력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폄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코 그런 의도로 이 논문을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몇몇 전통적인 언어철학적 주제들은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철학적 질문들이 예리하고 합당한 대답들로 귀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 우리는 오래된 철학적 질문들의 해결이 일차적인 목표일 수 없으며, 아마 우리의 목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적 질문 자체가 공허하다는 확신으로 비약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 질문들은 공허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충분한 것들이다. 불충분하다면 그 질문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수단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철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통적인 철학적인 문제들에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희망은 없다.

보기를 들어서 언어와 사고 사이의 문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문제로부터 배태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사고가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보도록 하자. 명목론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갈무리된 사고는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없는 갈무리된 사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명목론자들은 현상의 일반성이나 동등성 처럼 잘 알려진, 사고와 관련된 현상들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무모순적인 이론을 만들 가능성에 관심이 있었다. 훌륭한 명목론적 이론은 관념, 명제 따위의 추상적인 개념이 불가피하며, 사고는 언어와 다를 바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철학적 이론으로서 명목론은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명목론적인 사실들이 그 경험적 사실들에 준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언어연구의 상이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서로 무관한 영역들에서 언어와 인간의 지적-개념적 능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중요한 실험적-이론적 작업이 수행된다. 이런 영역들 중에서 심리언어학과 특히 언어습득 연구, 신경언어학과 특히 주어진 언어환자들과 특정한 정신적인 능력에 끼치는 영향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연구, 언어와 언어 사이의 개념전달의 문제들을 포함하는 번역의 방법론적 실제 등의 연구를 손꼽을 수 있겠다. 이런 연구영역에 나아가, 특히 원숭이와 다른 고등동물들의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연구하

는 행태학(行態學: Ethologie)³⁶⁾ 등의 연구분야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한 영역들 중의 첫 번째 것을 고찰해 보면, 언어와 사고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난다: 갈무리된 사고에 대하여 비문법적인 실어증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비언어적인 뇌의 반구(통상적으로 우반구(右半球))만이 자극되는 경우, split-brain(分斷腦) 환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정신적 표상만이 접근가능한가? 그러나 그런 질문들은 명목론적 철학자가 철학적 논증을 이끌어 가는 방식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언어와 사고에 대한 명목론적 테제의 유효성을 궁극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길이다.

철학적인 주제를 과학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두 가지 사안이 귀결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겠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 처리절차는 전체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그 문제의 부분적 측면만을 조명하는(그리고 통상 연구되어야 할 새로운 문제들로 유도하는) 일련의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질문들로 분할하려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들이 일단 그러나 아마 부분적으로만 대답되었다면, 철학적인 허깨비는 자신의 비밀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완전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학적인 질문의 해소는 그것의 말소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언어학적 주제에 관심을 가진 철학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일차적인 의무는 언어학의 철학에 대한 합리적인 연구프로그램과 그 규모 및 한계 그리고 기능들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연구 프로그램의 개괄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해 졌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의 철학으로의 고행의 길로 묘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철학자들은 언어학의 역사에 대한 장구하고도 정보가 풍부한 연구들로 언어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와 같은 작업의 목표는 언어학자들의 연구분과가 역사적으로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대한 적절

36) [역주] 이에 대해서는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생물학자 K. Lorenz의 행동이론을 계승하여 행태학(Ethologie)라는 학문분과를 창시한 I. E. Eibesfeldt의 대저 『Die Biologie des menschlichen Verhaltens. Grundriß der Humanethologie(인간행동의 생물학. 인류행태학 총설)』(1997, Seehamer)를 참조.

한 표상으로 언어학자들을 도와주고 잘 정리되고 특히 풍부한 과학적 전통 속에서 작업하게 하는 의식을 일깨워줌으로써 그들을 도와주는 데 있다. 언어학의 현재 상태로 볼 때 이러한 목표설정만으로도 철학자들의 작업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일 것이지만,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공적은 아니다. 그 두 번째 목표는 젊은 언어학자의 양성과 대안적인 연구전략의 선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역사는 바로 모든 과학의 철학의 실험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철학은 과학이 무엇이고 무엇일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두 번째: 철학자들은 현재의 언어학적 이론들의 공리체계를 연구해야 하며 사용된 개념들을 분석하고 언어학자들을 방법론적 논의에 올바르게 인도하게 도와주어야 한다(예를 들면 어떤 주장에서 무엇이 증거인가? 무엇이 경험적인 사실이고 무엇이 이론적인 가설인가? 주어진 이론으로부터 무엇이 설명될 수 있는가? 표기법의 변형, 등가적인 이론들, 경험적 데이터의 차이로부터 생기는 귀결들은 어떤 것들인가? 등등)

물론 우리는 철학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언어학적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언어학자들과 창조적으로 협동해야 하며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도움을 주고 해결이 탐색될 수 있는 가능한 경로들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비판적인 논의들을 유발시키고 상세한 질문들을 제기해야 한다. 언어학의 철학자는 언어학의 영역에서 언어학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학의 철학이 관건인 한, 그들의 의도는 언어학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새로운 언어학적 인식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제 한 마디로 줄여 보자: 언어학의 철학의 의의는 언어에 대한 철학적인 이론을 만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 연구의 발전을 동반하고 후원하는데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언어학 연구와 철학 연구 사이의 반목의 나락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두 영역 사이의 융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자 소개

Sylvain Auroux(실뱅 오루)

1947년 생. 파리 7대학 언어학과 교수, “언어이론의 역사 연구그룹” 프로젝트의 책임자. *La sémiotique des Encyclopédistes: Essais d'épistémologie historique des sciences du langage*(백과전서 학파의 기호학, 언어학의 역사인식론에 대한 에세이, 1979), *L'illuminismo francese e la tradizione logica di Port-Royal*(프랑스 계몽주의와 포르-르와얄의 논리학적 전통, 1982) 등의 저서가 있으며, 편저로는 *Histoire des idées linguistiques*(언어사상사)가 현재까지 2권 간행(1989/1992)되었고, *La logique des idées*(사상의 논리, 1993), *La révolution technologique de la grammatisation*(문법화의 기술적 혁명, 1994)이 있다. 학술지 *Histoire Épistémologie Langage*(역사, 인식론, 언어, 1979년 이후)의 편집자이다.

Djamel Kouloughli(자멜 쿨루리)

1947년 생. 파리의 국립 학술연구 센터의 아랍 언어학 책임 연구원. *La thématique du langage dans la Bible*(성서에 나타난 언어의 주제, 1989, G. Bohas, J. -P. Guillaume와 공저), *The Arabic Linguistic Tradition*(아랍의 언어학적 전통, 1990), *Grammaire de l'arabe d'aujourd'hui*(현대 아랍어 문법, 1994) 등의 저서가 있다.